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미나스 대순교자

루가 제8주일

성 미나스 대순교자

제7조,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스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B 237
- 사도경 : 고린토 후 4,6-15 / 봉독서 248
- 복음경 : 루가 10,25-37 / 128. B 7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미나스 대순교자

거룩한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믿음을 고백했는지를 알려주는 한 사례가 우리 교회에서 11월 11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성 미나스 대순교자와 통치자의 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통치자의 달콤한 제안과 질문들에 대해 성 미나스 순교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이집트 출신이며 그리스도인인 미나스라고 합니다. 저는 군인이었으며 우상숭배자들의 무례한 행동들을 보고 산 속으로 떠났습니

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해할지언정 영혼은 어찌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인의 굳건한 영혼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성인을 굴복시키거나 믿음을 꺾지 못하게 된 통치자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들을 모욕하는 이집트인 미나스를 참수 형에 처하시오!”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

이번 주보에는 주일마다 터키 피시디아의 성당과 가평 주 변모 수도원 등에서 전해지는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하는지 잔잔하게 전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성 사도 바울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2,4)라고 가르치며,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이며 신학자이고 복음 저자였던 성 요한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요한1서 4,16)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모든 것이 오로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끼는지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또 어떤 민족일지라도 손수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세상에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주의해라.” 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느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시거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130,30)

거룩한 복음에서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을 주는 자로 표현된 곳은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조차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돌팔매질에서 구해 주셨던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요한 8,11)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요한 12,4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함께 지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쓸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에도 있고 하늘나라에도 있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나,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이렇게

☞ 3면으로 계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 성당에 1만 원을 헌금할 때는 꽤 큰 돈 같아 보이는데, 그 돈으로 쇼핑할 때는 적어보이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 성당 안에서 2시간이면 오래 있는 거 같은데, 영화를 2시간 볼 때는 짧아 보이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 기도할 때는 뭐라 할 말을 잘 못 찾겠는데,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잘도 재잘대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 성경이나 신앙 서적은 한 장을 읽기가 ‘힘들고’ ‘지루한데’, 일반 소설은 100쪽도 쉽게 읽어내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 하느님에 대해 무엇인가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것은 어려운데, 옆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말을 듣고 퍼뜨리는 것은 쉬우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 잡지나 신문, 대중 매체 등에 실린 것은 쉽게 믿으면서도, 성경 말씀은 의심을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 모두들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면서도, 거기 들어가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이메일을 통해 이리저리 보내져온 가짜 뉴스나 잡다한 이야기는 얼른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면서도, 하느님에 관한 말씀을 전송하고자 할 때는 이리저리 여러 번 생각하면서 머뭇거리니 이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게 되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이 한 가지만 주의해서 실천합시다. 주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우

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으로 화답합시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요한1서 4,18)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

소 식

대교구

■성탄 대림절 시작

오는 11월 15일(목)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아래와 같은 금식 기간이므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축일표에 따라 :

- 11월 15일~12월 17일 : 생선은 허용되며 육류는 금합니다.(단, 수·금요일엔 육류는 물론 생선류도 모두 금합니다.)
- 12월 18일~12월 24일 : 엄격한 금식으로 육류와 생선류 모두 금합니다.

■감사의 편지

그리스 아테네의 산불로 희생당한 형제들을 위해 한국정교회에서 성금을 모아 그리스 교회에 보낸 것에 대해 메소게아와 라브레오티기의 니콜라오스 대주교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화재로 인해 희생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아픔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중략 …… 한국 형제들의 큰 사랑과 친절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18,000유로는 한국 형제들의 넉넉하고 큰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국의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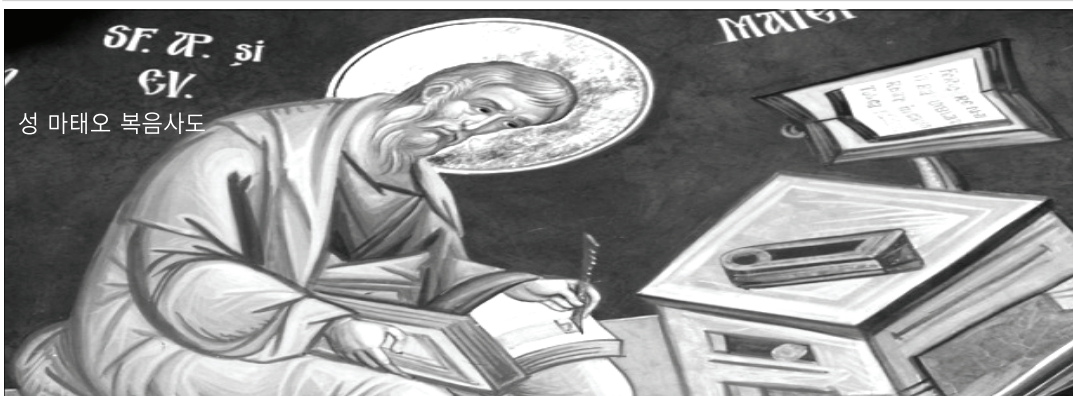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부인회 가을 소풍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부인회는 지난 주일(11월 4일)에 용산에 있는 가족공원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면서 서로 준비해온 간식도 나누어 먹었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도 함께 부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간 예식

- 11월 13일(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축일
- 11월 16일(금) 성 마태오 복음사도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성 마태오 복음사도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